

강소 실적주 흥행... 8개사 청약증거금 1조 이상 몰려

대어 사라진 시장서 티쓰리엔터·모델솔루션 선풍 수요예측·공모주 청약 1000대 1 이상 경쟁률 연내 바이오노트 등 14개사 IPO ... "주가 상승 기대"



<1면에서 계속> 뿐만 아니라 심사 승인까지 완료하고 중단한 현대오일뱅크, 심사 단계에서 미승인으로 끝난 교보생명, 청구서를 접수하지 않았지만 신규 상장 후보군에 들었던 CJ올리브영, SSG닷컴, 케이뱅크 등도 증시 침체로 IPO 수요가 줄어들자 증시 입성을 뒤로 미뤘다.

IPO 시장이 얼어붙는 와중에도 중소형 IPO만큼은 선전하고 있다. 3개월간(8월 9일~11월8일) 공모주청약을 진행한 기업 22곳(스팩-리츠 제외) 중 청약증거금이 1조 원 이상 몰린 기업은 8곳에 달했다. 스티쓰리엔터티엔먼트(5조8000억 원) △모델솔루션(5조1000억 원) △에스비비테크(4조6000억 원) △대성하이텍(4조2000억 원) △뉴로메카(3조7000억 원) △알파바이오(2조9000억 원) △오에스피(2조2000억 원) △이노롤스(1조4000억 원) 등이다.

이들은 모두 공모가 기준 시가총액이 2000억 원 이하로 작았다. 모델솔루션의 시가총액은 1720억 원, 뉴로메카 1666억 원, 대성하이텍 1195억 원, 티쓰리엔터티엔먼트 1195억 원, 알파바이오 1017억 원, 오에스피 785억 원, 에스비비테크 737억 원, 이노롤스 643억 원 수준이었다. 수요예측·공모주청약도 대부분 1000대 1 이상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일례로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사인 티쓰

리엔터티엔먼트는 1~2일 기관투자자 수요예측에서 1744대 1의 경쟁률을 거두며 공모가 희망 밴드(1500원~1700원) 상단인 1700원에 공모가를 확정했다. 밴드 상단(1700원) 이상을 제시한 비중이 99.61%에 달했다. 7~8일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공모주청약에서도 경쟁률 1384 대 1을 올리며 기대감을 키웠다.

협동로봇 전문기업 뉴로메카도 지난달 20~21일 진행한 기관투자자 수요예측에서 165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희망 밴드(1만4000~1만6900원) 최상단인 1만6900원으로 공모가를 결정했다. 참여 기관의 90% 이상이 희망 범위 상단을 적어냈다. 26~27일 공모주 청약에서는 배정 물량(37만5000주)에 4억3321만 주 몰리면서 경쟁률 1182대 1을 달성했다.

중소형 공모주가 IPO 침체 속에서도 선전하고 있는 이유는 몸값이 낮아 수급 부담이 상대적으로 작다는 점이다. 상장 직후 물량이 쏟아져 나올 수 있는 대형 공모주보다 주가 안정성에서 우위에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최근 3개월간 IPO 청약증거금 1조 원 이상을 모은 신규 상장사 7곳의 공모가 대비 상장 첫 날 수익률(중가 기준)은 평균 42.9%에 달했다. 로봇부품업체 에스비비테크는 상장일 150.4%(1만2400원→3만1050원)의 수익률을 올렸다.

대어급 공모주들이 초라한 성적을 거둔 점도 중소형 IPO에 대한 관심을 키웠다. '몸값 3조'로 관심을 모았던 더블유씨피(WCP)는 수요예측에서 33대 1의 저조

3개월간 성장한 주요 중소형 공모주 (단위: 원) * 8월9일~11월8일 ** 공모가 대비

기업명	청약증거금	공모가 기준 시가총액	상장일	상장사 수익률**
대성하이텍	4조2500억	1195억	8/22	62.22%
알파바이오	2조9605억	1017억	9/29	40.77%
모델솔루션	5조1124억	1720억	10/7	14.44%
이노롤스	1조4097억	643억	10/7	26.80%
오에스피	2조1990억	785억	10/14	19.64%
에스비비테크	4조6000억	737억	10/17	150.40%
뉴로메카	3조7000억	1666억	11/4	24.56%
티쓰리엔터티엔먼트	5조8000억	1195억	11/17	-

자료: 한국거래소 [그래픽=임수진 기자]

11·12월 수요예측 예정 종목 (단위: 원)

종목명	수요예측일	희망공모가		공모금액*
		하단	상단	
바이오인프라	11월 16~17일	2만3000	2만6000	230억
에스에이엠지엔터티엔먼트	11월 17~18일	2만1600	2만6700	378억
자람테크놀로지	12월 1~2일	1만8000	2만2000	180억
바이오노트	12월 8~9일	1만8000	2만2000	2340억

* 희망공모가 하단 기준 자료:한국거래소 · 38커뮤니케이션



한 경쟁률을 기록해 공모가를 희망 밴드 하단(8만 원)보다 낮은 6만 원으로 확정했지만 공모주 청약에서 3915억 원의 증거금을 모으는데 그쳐며 체면을 구겼다. 소카도 밴드 하단(3만4000원)에서 공모가(2만8000원)를 대폭 낮췄지만 기업가치 고평가 논란 등으로 경쟁률은 14대 1에 그쳤다. 특색 있거나 성장 기대감이 큰 점도 주목을 끌었다. 유기농 반려동물 사료 생산업체 오에스피가 대표적이다. 오에스피는 빠르게 성장하는 반려동물 사료 시장에 힘입어 수요예측에서 1583대 1, 청약에서 1019대 1을 기록했다. 국내 시제품(프로토타입) 업계 최초로 상장에도 도전한 모델솔루션도 관심을 받았다. 모델솔루션은 자동차·정보기술(IT) 제품, 의료기기 등의 프로토타입을 만드는 회사다. 삼성전자·구글·현대차·테슬라 등 다국적 기업을 고

객사로 확보했다. 연말까지 14곳 수요예측·공모청약 앞두고 10월 기준 48개사들이 상장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한 뒤 심사 승인을 앞둔 상태다. 연말까지 '알짜배기' 중소형 공모주를 향한 관심은 지속될 전망이다. 이달 10일까지 6곳이 IPO를 진행했고 연말까지 14곳이 공모주 청약에 돌입한다. 스인벤처랩 스펀트론 △바이오인프라 △에스에이엠지엔터티엔먼트(SAMG) △자람테크놀로지 △바이오노트 등이 대표적이다. 이 중 SAMG는 17~18일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을 거쳐 24~25일 공모주 청약을 진행한다. 공모가 밴드는 2만1600~2만6700원이다. 공모 주식 수는 175만 주이고 구주매출은 없다. 예상 공모 규모는 378억~467억 원, 예상 기업 가치는 1932억~2388

억 원이다. SAMG는 미니특공대, 캐치미 니핑 등 인기 어린이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는 콘텐츠 제작사다. 자체 캐릭터·브랜드를 바탕으로 키즈 콘텐츠를 제작해 다양한 국내외 매체들에 공급한다. 체외진단키트 제조·판매 기업인 바이오 노트는 유가증권시장 상장에도 도전한다. 내달 8~9일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을 거쳐 13~14일 공모주 청약을 진행할 계획이다. 공모가 밴드는 1만8000~2만2000원이다. 공모 주식 수는 1300만 주(구주매출 포함)다. 공모 규모는 1872억~2288억 원으로 예상된다. 예상 기업가치도 1조8700억~2조2900억 원에 달한다. 일각에서는 연말 신규상장 기업들 중에서 높은 주가수익률을 기록하는 기업들이 발생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낮은 공모가로 성장한 다음 자기 기업가치를 찾

아 반등한다는 분석이다. 흥국증권에 따르면 5년간(2017~2021년) 월별 신규 상장 기업의 1개월 주가수익률이 가장 높은 달은 10·11·12월이었다. 수익률은 각각 평균 30.8%, 42.8%, 33.3%에 달했다.

최종경 흥국증권 연구원은 "연말 성수기 기업 수는 많아지고 공모가는 안정돼 낮은 공모가로 성장하는 기업들을 좋은 투자 기회로 삼는 전략을 제시한다"며 "추가적으로 코스닥 특례 상장 기업들의 경우 이러한 성수기 효과가 더 뚜렷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특례 상장 기업들의 연말 상장 역시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증권업계는 내년 IPO 시장과 관련해 투자자에게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금리 상승이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을 높이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올해와 비슷하게 특정 업종 또는 종목으로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유진형 DB금융투자 연구원은 "최근 상장예정기업과 IPO 주관사가 공모가밴드 하향, 공모액 축소, 기존 투자자 보호예수 비율 증가 등 공모조건을 공모 투자자에게 더 유리하게 조정하고 있다"면서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기준금리 인상이 일단락될 것으로 보이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공모 투자자 우위의 시장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IPO 투자자는 이러한 시장 변화를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세라 대신증권 연구원은 "내년 IPO 시장은 특정 섹터 및 종목에 관심 집중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전반적으로 IPO 시장에서 밸류에이션 부담을 느끼는 반면 주식시장 하락이 지속될 시 IPO 종목들의 수요예측과 수익률 양극화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윤승준 기자 sjyoon@skyedaily.com

SSG닷컴, 중소상공인 전문관 '가치상점' 오픈

20일까지 '같이하는 가치소비' 행사... 제철 먹거리 최대 40% 할인

SSG닷컴이 소상공인·중소기업지원차지 단체 상품과 행사를 한데 모은 모바일 중 소상공인 상상관 '가치상점'을 열고 운영

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 '가치상점'에서는 신선농산물과 일상 용품 등 장바구니 카테고리별 중심으로 약 800개 중소상

고인 파트너사의 5000여 종 상품을 선보인다.

이곳에서는 기존 운영해왔던 쓱닷컴 '소상공인 전문관' 상품을 비롯해 '중소기업 유통센터'와 같은 유관 기관, '경북세일페

스타' 등 지자체 지원사업과 연계한 상품과 행사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사이소', '강원더블', '남도장터', 'e경남 물', '우체국소프' 등에서 취급하는 상품도 함께 소개한다. 이번 전문관 신설은 파트너사와의 동반 성장을 모색하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앞서 SSG닷컴은 소상공인 전문관을 통

해 우수 파트너사의 판로 확대를 지원해 왔다. 농업회사법인 다농이 운영하는 '다농이네' 제철 농산물이 대표적으로, 이 업체는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매출이 전년 대비 34% 증가하는 등 입점 이후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쓱닷컴은 '가치상점' 오픈을 기념해 14일부터 20일까지 '같이하는 가치소비' 행사를 연다. '장흥 명품구이 한우세

트' '해남 절임배추' '영광 민물장어' 등 제철 먹거리와 '키리아 KF94마스크' '크린업 중성 액체세제'와 같은 일상용품을 최대 40% 할인 판매한다.

SSG닷컴 관계자는 "취급 상품군을 비식품까지 확대 중이며, 모바일 광고와 라이브 방송 등의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나운 기자 nykim@skyedaily.com

www.douzone.com
DOUZONE

비즈니스의 미래는 바로 지금부터

ERP, 그룹웨어, 문서관리 솔루션을 통합한 올인원 디지털 비즈니스 플랫폼의 탄생 -

Amaranth 10

새로운 차원의 융합-연결-공유를 통해 일하는 문화를 혁신적으로 바꿉니다

기업에 필요한 다양한 솔루션을 하나에 담아 어떤 업무든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업무속도는 혁신적으로 빨라지고 데이터의 공유부터 관리까지 편리해집니다

솔루션 관련 비용 절감은 물론, 불필요하게 낭비되었던 업무시간도 절약됩니다

회계관리
HR
Groupware(UC)

임직원 업무관리
CRM
문서 관리